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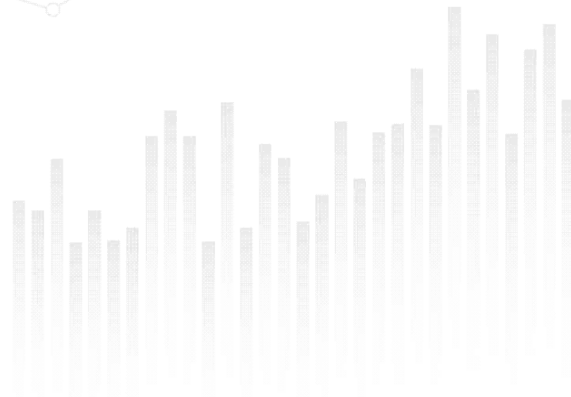
## 그리스

### Hellenic Republic

2022년 12월 5일 | 조사역(G3) 이지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그리스  
아테네



# 국가개황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그리스  
Hellenic Republic

## 일반개황

<b>면적</b> 132천 km <sup>2</sup>	<b>인구</b> 10.6백만명 (2022 <sup>1</sup> )	<b>정치체제</b> 의원내각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정책
<b>GDP</b> 2,228억 달러 (2022 <sup>1</sup> )	<b>1인당GDP</b> 20,940 달러 (2022 <sup>1</sup> )	<b>통화단위</b> Euro (EUR)	<b>환율(US\$기준)</b> 106.94 (2022 <sup>1</sup> )

- 유럽 동남부 발칸 반도 남단에 위치한 그리스는 한반도 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국토와 10.6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및 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선박을 이용한 해운업과 고대 문화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관광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식료품 가공업을 제외한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임.
- 2010년에 재정위기를 겪은 이후 유로존 및 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3,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 2017년 이후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었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후, 관광산업 회복을 기반으로 GDP 규모가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됨.
- 2019년 7월 신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집권한 이후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행정 및 경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미숙한 대처, 에너지 가격 급등, 야당·언론에 대한 도청 스캔들로 인하여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1. 4. 5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94), 투자보장협정('95), 항공협정('96), 이중과세방지협정('98), 관광협정('06), 해상협정('06), 경제협력협정('10), 군사기밀정보협정('16)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1,639,553	863,204	2,029,90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자동차
수입	528,177	796,066	1,308,790	석유제품, 농약 및 의약품, 기타금속광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6월 말 누계,총투자기준) 19건, 16,895천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up>f</sup>
경제성장률	1.7	1.8	-9.0	8.3	5.2
소비자물가상승률	0.8	0.5	-1.3	0.6	9.2
재정수지/GDP	0.8	0.2	-10.9	-8.0	-4.4

자료: IMF, EU

### 관광업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성장세 둔화 전망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9.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그리스 경제는 2021년에는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과 코로나19 회복기금 투입에 따른 각종 프로젝트 추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관광 부문 회복과 내수시장 활성화 및 개인 소비지출 증가에 힘입어 8.3%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22년에는 에너지·식량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함.
- 관광 부문은 그리스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적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은 관광수요를 약화시켜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2022년 경제성장률은 5.2%로 예상됨. 한편, S&P는 관광업의 지속적인 회복을 통해 향후 3년 간 (2023~25년) 그리스 평균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함.
- 2022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8.0%(1Q) → 7.7%(2Q) → 3.6%(3Q) → 0.9%(4Q)
-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직접적인 무역 연계가 적고 비교적 다양한 가스 수입원(아제르바이잔, 알제리 등)을 확보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스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주요 교역국인 유로존 국가들의 성장 부진, NATO 회원국으로서 전쟁의 장기화, 전쟁 규모 확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간접적인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1] 그리스 개인 소비심리 및 민간소비 변화율 [그림 2] 2019년 동일 기간 대비 그리스 관광수입 및 항공편 (단위: %)



자료: Eurostat,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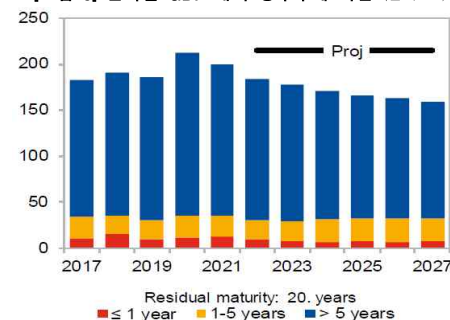
자료: Bank of Greece, Moody's

## 국내경제

### 그리스 정부 현금보유액은 증가 추세이나, 정부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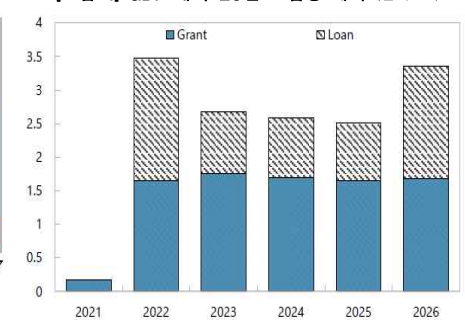
- 과중한 재정적자로 인한 경제위기로 2010년 시작된 대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연금 삭감, 공무원 상여금 및 보조금 삭감, 의료·복지 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 정책을 통해 그리스 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2018년 8월 종료되었음.
- 채권단은 2018년 구제금융을 종료하며 채무 만기를 연장해 주었고, 그리스는 2022년 4월 약 19억 유로에 해당하는 IMF 앞 채무를 조기상환하였음.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후 EU의 예산감독기구를 통해 실시된 강화된 관리감독(Enhanced Surveillance, ES)\*은 2022년 8월에 종료됨.  
\* 그리스 경제, 재정, 금융 상황을 점검하며 분기별 보고를 통해 채무부담 경감조치 지속 여부 판단
- EU 집행위는 그리스가 유로존과 약속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며 재정과 복지, 금융 안정성, 노동시장, 민영화, 공공 관리를 포함한 6대 영역에서 개혁을 이뤘고, 그리스 경제 위기가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 전이될 가능성이 줄어들며 따라 관리 감독을 종료한다고 밝힘.
- 코로나19 지원 제도가 철수되며 관련 지출이 줄었으나, 그리스 정부는 물가 급등으로 인한 가계·기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긴축재정 정책을 2023년 이후로 연기함. 에너지 가격 보조금 등으로 정부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4.4% 및 2023년 -3.4%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1년 193%에서 2022년 18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는 EU의 경제회복기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EU 펀드'(NGEU)를 통해 2026년까지 182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127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며, 이는 그리스 GDP의 16.8% 규모에 해당함.
- 2021년 그리스 정부는 낮은 조달비용과 국가등급 상승에 힘입어 채권시장에서 7차례에 걸쳐 158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2021년 말 기준 316억 유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여 재정완충 여력을 확보함. 한편, ECB는 2022년 3월 PEPP(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가 종료되었음에도 그리스의 통화 정책이 악화될 경우 그리스 국채를 매입할 것을 밝힘.

[그림 3] 만기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단위: %)



자료: IMF

[그림 4] GDP 대비 EU펀드 집행 계획 (단위: %)



자료: IMF

##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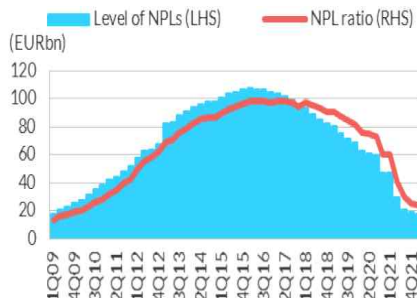
### 자산보호제도를 통해 그리스 은행산업의 부실여신비율이 획기적으로 감소

- 그리스 정부는 자산보호제도(Hercules 프로그램) 하에서 증권화(Securitization), 채권 판매(Loan sales)를 통해 그리스 은행의 총 대출자산에서 부실여신 익스포저(Non Performance Exposure, NPE)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 31%에서 2021년 12.8%로 급격히 감소시킴.
- 그리스 은행들은 그리스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 구매자들의 투자로 지난 3년 간 부실 자산을 300억 유로 이상 줄였으며, 2022년 말까지 은행산업의 NPE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은행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회복·복원력 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로부터 낮은 차입 비용으로 대출을 받아 시중은행을 통해 민간 부문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의 대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여 추가적인 부실여신 발생을 예방함.
-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한 부실여신비율이 개선됨으로써 은행 자산의 질 개선 뿐 아니라 그리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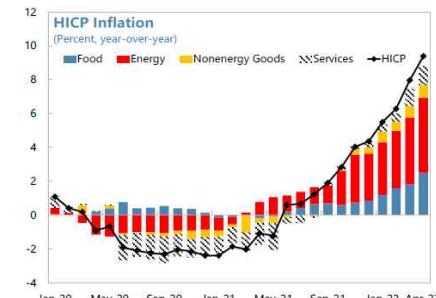
- 그리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부터 2021년 초까지 -2%~1% 사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2021년 기후변화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 이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음.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EIU에 따르면 그리스 민간소비 성장률은 2022년 3%, 2023년 -0.9%로 전망됨.
- 그리스 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2%로 27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9월 12.2%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EIU의 2022년 그리스 평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9.9%임.
- 그리스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취약계층 및 기업 양으로 약 7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지급함.

[그림 5] 그리스 부실여신 금액 및 비율(십억 유로, %)



자료: Bank of Greece, Fitch Ratings

[그림 6] 그리스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IMF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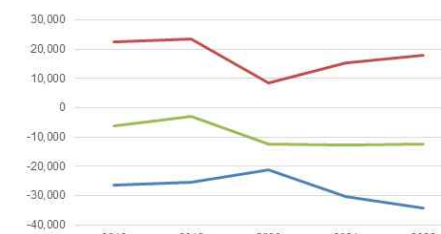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up>f</sup>
경상수지	-6,249	-3,112	-12,413	-13,858	-13,033
경상수지/GDP	-3.0	-1.5	-6.6	-6.4	-5.9
상품수지	-26,532	-25,572	-21,135	-31,224	-35,714
상품수출	38,208	36,308	33,036	46,237	53,150
상품수입	64,741	61,881	54,171	77,461	88,864
외환보유액	2,115	2,142	4,164	3,699	3,097
총외채	477,000	503,800	606,800	630,200	647,300
총외채잔액/GDP	224.9	245.6	321.6	291.3	291.6
D.S.R.	16.1	32.5	34.3	26.3	13.1

자료: IMF, EIU

###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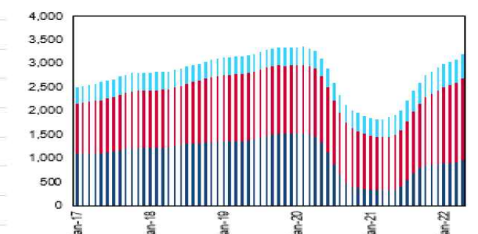
- 그리스는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 부문의 타격으로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여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201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함.
- 관광수입 증가로 인한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등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의 변동 폭은 작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유로존의 경기침체는 그리스 관광 서비스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리스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7] 그리스 상품·서비스·경상수지 추이(백만 달러)



자료: IMF

[그림 8] 그리스 서비스 수출액 추이(백만 유로)



자료: Bank of Greece, Fitch Solutions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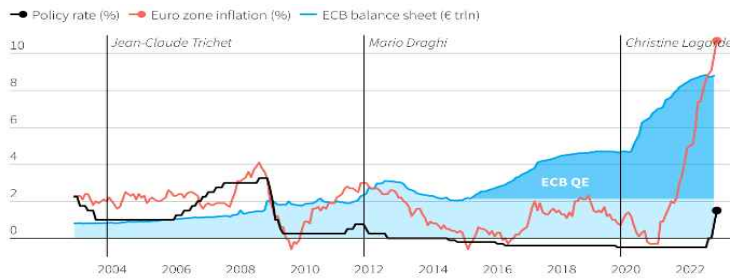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FDI 증가세 둔화 예상

- 2019년 친기업 성향의 신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며 증가세를 보이던 그리스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44.8억 유로) 대비 29% 감소한 28.1억 유로를 기록하는 데 그쳤음.
- 2021년 그리스 가스공사(DEPA) 등 공기업 민영화 진행에 따라 FDI 유입액은 53.5억 유로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 그리스를 포함한 유로존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저해된 것으로 추정됨.
- IMF(2022.6월)는 그리스 정부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불확실성 감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 유로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및 ECB의 긴축통화정책 실시에 따른 대외거래 조건 악화

- 유로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 위기로 인한 유로존 앞 투자 심리 악화, 미 연준과의 금리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2022년 초부터 미 달러화 대비 급격한 약세를 보인 결과, 2022년 7월 20년 만에 처음으로 패리티(Parity 유로:달러 가치 등가)가 붕괴됨.
- ECB는 인플레이션 대응 및 미국과의 금리 격차 축소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0%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함. 이에 따라 -0.5%를 유지하던 유로존 기준금리(예금금리)는 1.5%로 인상됨.
- ECB는 금리인상에 따른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우려되에도 불구하고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2%)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에 개최될 차기 정책회의에서 0.5%p ~ 0.75%p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함.

[그림 9] ECB 기준금리, 대차대조표 및 유로존 인플레이션 (단위: %,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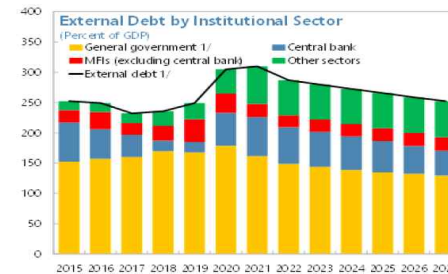
자료: Reuters

## 외채상환능력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높은 편이나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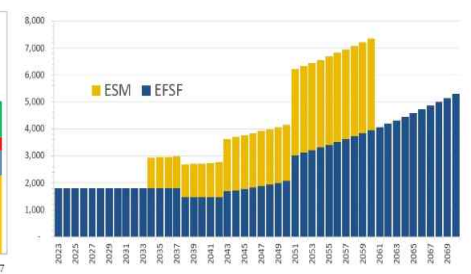
- 2021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외채규모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GDP 규모 증가의 영향으로 2020년 321.6%에서 291.3%로 개선되었음. 2022년에는 외채 및 GDP가 소폭 동반 증가하여 동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수출 증가에 따른 총수출 증가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0년 34.3%에서 2021년에 26.3%로 하락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2021년 외환보유액은 37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0.4개월분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2022년에는 31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0.3개월분)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 IMF, Moody's 등은 그리스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나, 정부 외채의 대부분이 EU 차원의 지원으로 장기 저리 자금인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리스 외채의 대부분은 그리스 재정위기 시 EU 긴급 지원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2021년 말 기준 공적 부문(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그리스 구제금융기금(GLF) 등 포함) 2,259억 유로, 민간 부문 842억 유로로 구성되어 있음.
- IMF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경상수지 적자 규모 감소 등을 통해 그리스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2021년 310.1%에서 2027년 252.1%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0] 그리스 GDP 대비 외채의 차주별 비율(%)



자료: IMF, Bank of Greece

[그림 11] 그리스 EU 지원기금 상환 스케줄(백만 유로)



자료: ESM

## 구조적취약성

### 관광업에 치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취약

- 그리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그리스의 산업별 GDP 구조는 농업 4%, 광공업·제조업 19%, 서비스업 77%로 구성됨. 정유, 식품가공 등을 제외한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크게 부진하고, 에너지 및 공산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인구 1,060만 명으로 내수시장이 작은 편이며, 저출산·고령화 및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청년층의 이민으로 가팔라지는 인구 감소세는 내수시장 성장 전망을 어렵게 함.

### 낙후된 인프라와 낮은 규제로 인해 성장동력 약화

- 그리스 인프라의 대부분이 1980년대에 건설되어 낙후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그리스 2.0' 사업을 통해 신규 도로·철도·ICT 인프라 구축, 보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시행이 지연됨.
- 가족기업 중심인 소규모 저생산성 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정부의 친기업적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낮은 관행 및 규제, 느린 청산제도 등은 창업여건을 훼손하고 국내외 투자를 저해함.

### 부실채권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금융 부문의 취약성 상존

-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약화되었으며, 2015년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대두되자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부실채권이 급격히 증가함. 현재 그리스 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유럽안정기구(ESM)의 구제금융 지원 요건에도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 확충 및 부실채권 감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에 250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함. 이와 관련하여 2015년 ESM은 그리스국립은행(NBG), 피레우스 은행(Piraeus Bank) 앞 54억 유로를 지원함.
- 정부는 2018년부터 자산보호제도인 'Hercules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매각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 대출자산 중 부실채권 비율이 2020년 31%에서 2021년 12.8%로 감소함. 부실채권 매각이 이어지면서 2022년 말에는 전체 부실채권 비율이 8%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Moody's는 부실 채권 비율 하락에 따른 그리스 은행들의 건전성, 수익성 관련 지표의 개선, 판크레타 은행(Pancretia Bank)의 증자를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고 그리스의 주요 은행 6곳의 장기 예금 등급을 1~2단계 상향 조정함.
- 다만, 최근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조달 조건의 약화는 취약한 그리스 은행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최근 자산 규모 5위인 아티카 은행(Attica Bank)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금융 부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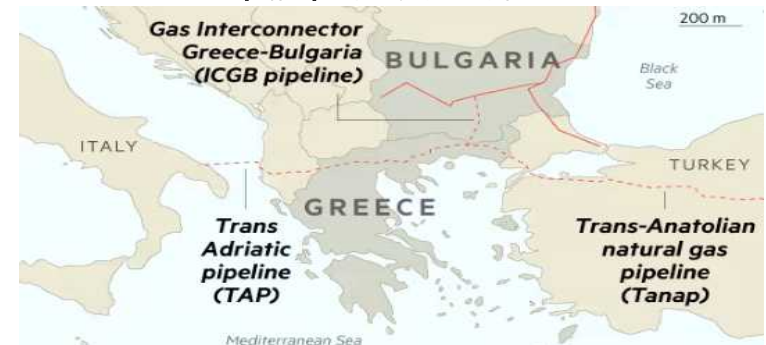
### 다수의 고대 문명 유산으로 관광 부문의 발전 잠재력 보유

- 그리스는 다수의 고대 문명 유산을 보유하여 관광업이 GDP의 약 20%(연관 부문을 포함할 경우 25% 이상으로 추정)를 점유하고 있음. 관광업은 숙박업, 외식업, 교통 인프라 산업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관광업의 회복이 그리스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3,401만 명을 기록한 그리스 방문 관광객 수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74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1,501만명으로 증가함. 2022년 8월 말 기준 1,912만 명이 방문하며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임.

###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물류 및 에너지 요충지에 위치

- 그리스의 주요 항만들은 동지중해에 위치하여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간의 상품 운송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유럽과 중국의 투자를 통해 주요 항만(피레우스 항, 데살로니카 항)들의 터미널이 현대화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현재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리스 항만과 중·동부 유럽 지역을 잇는 운송 인프라 건설을 통해 육상·해상을 연결하는 물류망이 구축될 수 있을 전망임.
- 그리스는 2020년 10월 완공된 아제르바이잔의 가스전에서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인 TANAP(Trans-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과 TAP(Trans Adriatic Pipeline)의 연결 통로에 위치하고 있음. 아울러 2022년 7월 그리스와 불가리아 간 가스 인터컨넥터(ICGB)가 완공되며 남동부 유럽에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리스의 유럽 내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줄이려는 EU의 요구에 따라 2022년 10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은 TANAP을 통한 가스 공급량을 기존 160억 입방미터에서 320억 입방미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그림 12] 그리스 내 가스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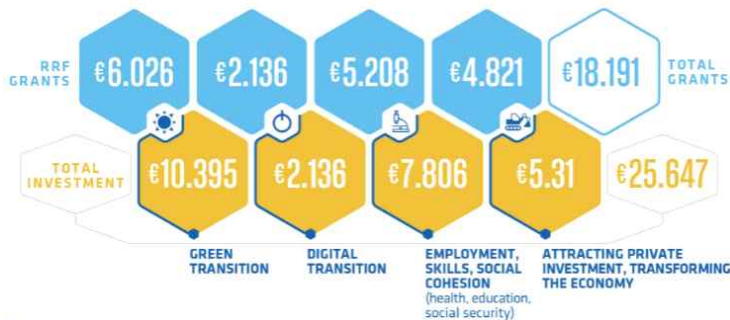
자료: Financial Times

## 정책성과

### 그리스 2.0을 통해 경제회복 및 녹색·디지털 전환 가속화

- 그리스 정부는 2021년 국가 회복 중장기 사업계획인 '그리스 2.0'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녹색·디지털 전환과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산업 개발과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리스 정부는 2027년까지 약 598억 유로를 그리스 2.0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표했으며, 재원은 EU 회복기금(NGEU)으로부터 309억 유로(보조금 182억 유로, 대출 127억 유로), 민간으로부터 289억 유로를 조달할 계획임.
- EU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사회적 피해의 복구와 녹색·디지털 전환 구현을 목표로 7,500억 유로 규모의 NGEU를 조성하였음. 이 중 회복·복원력 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이 예산의 90%를 차지함.
- EU 회원국들은 NGEU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별계획(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제출 후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별계획을 바탕으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짐. 집행위는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회원국이 국별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회원국에 지원된 NGEU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그리스 2.0은 총 4개 분야(녹색전환·디지털전환·일자리창출·경제개혁)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스 정부는 향후 6년 간 경제성장률 7% 달성, 일자리 20만 개 창출, 민간투자 20% 증대 등의 목표를 제시함.
- 그리스 2.0에는 총 135억 유로 규모의 372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 9월 그리스 재무부는 32.8억 유로 규모의 142개 프로젝트를 추가한다고 발표함.
- 2022년 현재 추진 중인 그리스 2.0의 주요 프로젝트들로는 아테네 지하철 4호선 신설(2026년 개통 예정),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우체국 시스템 디지털화, 전기차 충전소 건설, 섬 마을과 내륙을 연결할 해저 전력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건물 보수공사 등이 있음.
- 당초 2020년 중 프로젝트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2021년에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보류됨. 프로젝트 발주처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재검토를 시행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활발히 발주 중임.

[그림 13] 그리스 2.0 분야별 투자 금액 및 RRF 보조금(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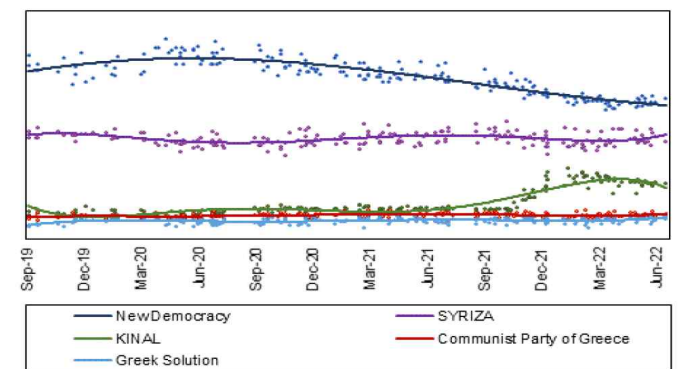
자료: Greece 2.0

## 정치안정

### 집권 신민주당, 시장친화적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청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 하락세

- 2019년 총선 결과 중도우파인 신민주당(ND)이 승리함으로써 미초타키스 현 총리가 집권하였으며, 현재 신민주당은 의회 300석 중 158석을 차지한 다수당으로서 총리의 개혁 정책에 힘을 싣고 있음. 이전 집권당인 시리자(SYRIZA)를 비롯한 야당은 상대적으로 분열된 상황임.
- 2021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신민주당 인사들이 정부에 포함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함.
- 미초타키스 행정부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금 감면, 행정 절차 간소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지지율 확보에 힘쓰고 있음. 이 외에도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 인프라 강화를 추진 중임.
- 그러나 2022년 8월 그리스 국가정보국(EYP)이 야당 대표 및 언론인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부 평판이 손상되었음.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미숙한 대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수준 저하 등으로 신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신민주당의 지지율은 2020년 말 45%에서 2022년 6월 36%까지 하락하였음. 신민주당 내부 파벌 중 일부는 2023년 7월 예정된 총선 전에 정부의 인기가 더욱 하락할 것을 우려하며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EIU 등 주요 분석기관들에 의하면 조기 총선의 실현 가능성은 낮음.

[그림 14] 그리스 정당별 지지율 추이(%)



자료: Fitch Solutions

## 사회안정

### 주택 가격 · 가계 대출 증가 및 높은 실업률은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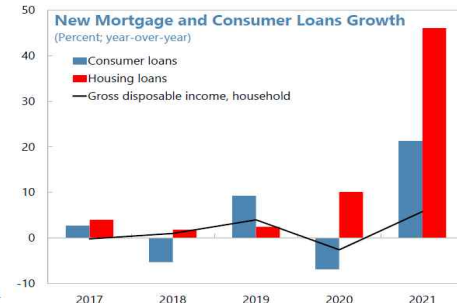
- 그리스 주택가격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 이상 상승하여, Eurostat에 따르면 2020년 그리스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비용 비율은 37%로 EU 국가 중 가장 높음. 소득 대비 월세 금액 비율 또한 크게 상승하여, 2021년 그리스 가계 대출 증가율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상회함.
- 그리스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골든 비자(Golden Visa) 정책 등을 통해 유입된 외국인 자본으로, 그리스 국립은행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의 그리스 부동산 투자액은 전년 대비 34.4% 증가한 11.7억 유로에 달했으며, 투자자 중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인원은 25%에 해당함.
- 그리스는 2014년부터 자국 내 부동산에 25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유효기간 5년의 영주권을 제공하는 골든 비자 정책을 운영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고, 2018년에는 적용 대상을 40만 유로 이상 예금자 또는 주식투자자까지 확대함. 타 EU 국가에서도 골든 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리스의 비자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음.
- 그리스 사회 연구기관 Eteron이 올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44세 응답자 1,007명 중 83%의 주요 관심사가 집값이었으며, 77%는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간신히 생계를 유지 중이라고 응답함.
- 그리스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높은 실업률은 2022년 8월 12.2%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아울러 2023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계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실업률 상승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그림 15] 그리스 주택가격 및 소득 대비 월세금액(%)



자료: IMF, Bank of Greece

[그림 16] 그리스 신규 주택자금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율(%)



자료: IMF, Bank of Greece

## 사회안정

### Moody's는 그리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2022.9월)는 ESG 요소가 그리스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 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요소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그리스는 2021년 서울의 1.7배에 해당되는 면적의 삼림이 소실되는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음. 관광산업을 위한 개발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녹색 전환을 위한 정부의 투자와 EU의 자금지원\*을 고려하여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그리스가 수령한 EU 회복기금(RRF) 금액의 3분의 1 이상은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위해 할당됨.
- (사회) 주거·의료 제도의 접근성은 높은 편이나, 고질적으로 높은 실업률에 따른 고학력 숙련노동자·청년층의 이민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그리스는 부유층의 탈세 및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지만 최근 행정 및 사법체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EU의 지원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향상되었음. 3차 구제금융과 관련된 강화된 관리감독(ES)은 종료되었으나, NGEU 기금 지원에 따른 EU의 모니터링이 지속됨에 따라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국제관계

### 미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운송 거점으로 그리스 활용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인 그리스는 2021년 미국과 상호 방위협정을 5년 연장하는 등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였음.
- 동 협정은 1990년에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미군은 동 협정에 기반해 그리스 영토 내 여러 군사 기지를 확보하여 훈련 및 작전을 수행해 오고 있음.
-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알렉산드루폴리스 항구는 미국의 지중해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 무기 운송의 거점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NATO 군사 작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운송 및 물류 허브로 각광받고 있음. 2021년 미군이 이 항구를 통해 수송한 전쟁 물자 건수는 약 3,100건으로 2020년의 14배에 달하며,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그리스를 발칸 반도, 흑해 및 동지중해 지역 안정의 핵심국가로 보고 있으며, 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안보를 포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킬 전망이다. 그리스는 영토 분쟁과 군사 갈등을 겪는 튀르키예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거점이 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임.

[그림 17] 알렉산드루폴리스의 위치



자료: Gastrade

## 국제관계

### 난민 문제 및 동지중해 영토 분쟁으로 튀르키예와 갈등 지속

- 중동·아프리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리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다수의 중동·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통로의 역할을 함. 2022년 8월 그리스 정부는 해상경비 강화 목적으로 튀르키예 접경 지역 일대에 설치된 약 40km 길이의 불법 이민 차단 울타리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함.
- 그리스 공공질서 장관은 튀르키예가 아시아·아프리카 난민 수천 명에게 의도적으로 그리스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의 안보에 매우 강도 높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 2022년 10월 지중해 연안 5개국(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키프로스, 몰타)은 EU 회원국의 국경수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Frontex)가 제3국(튀르키예)에서 감시·통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초의 공동 성명을 발표함.
- 그리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는 키프로스 섬 인근 동지중해에서 2020년 8월부터 진행된 튀르키예의 천연가스 탐사로 인해 촉발된 그리스와 튀르키예 간의 EEZ 분쟁 해결을 위해 2021년 1월 말 양국 정부 간에 회담이 재개되었으나,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됨.
- 2022년 8월에 튀르키예가 동지중해 분쟁 해역 근방에서 2년 만에 천연가스 시추 작업을 재개하면서 양국 간의 EEZ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IMF 자금 조기상환 등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임

- 그리스는 재정위기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 기금(EFSF, ESM 등), IMF 등으로부터 2,887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도입하였으며, 2018년 3차 구제금융이 종료됨.
- 그리스는 2022년 4월 19억 유로의 채무를 2년 조기 상환함으로써 IMF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2.3억 유로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IMF에 의하면 그리스의 GDP 대비 외채 규모는 타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2021년 말 기준 그리스 외채의 72%가 그리스 정부의 대외 차입임. IMF는 그리스의 GDP 대비 외채 비율이 경상수지 적자 축소 및 팬데믹 이후 GDP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미평가(2013.01)	0등급(2012.01)
Moody's	Ba3 (2022.09)	Ba3 (2020.11)
Fitch	BB (2022.01)	BB (2021.07)

### 재정건전성 개선 및 부실여신 감소 등에 따라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 Fitch는 2020년 1월, Moody's는 동년 11월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다만, 2022년에는 그리스 정부의 개혁 정책 및 은행 부문의 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로존 에너지 위기 및 경제침체에 따라 그리스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현 등급을 유지함.

- 그리스 경제는 2021년 관광 산업의 회복, 수출 및 FDI 증가 등으로 8.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음. 2022년에는 관광 부문 수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 및 관광수요 감소가 성장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2년 그리스 경제는 5.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 정부는 EU 회복기금(NGEU)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 미래산업 개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사업인 '그리스 2.0'을 추진 중임. 한편, 그리스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184%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임.
- 2019년 총선에서 신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세제개혁, 민영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야당 인사에 대한 도청 스캔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생활 수준 저하는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동지중해에서의 가스 탐사 작업, 난민 문제 등으로 인해 튀르키예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무기 운송거점 및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